

출신이며, 에베네셀 모자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3리는 구룡말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구룡말은 굴항리 또는 구령말 이라고도 부르는데, 왕제사 아래 자리 잡고 있으며 옛날에 큰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 아홉 마리의 이무기가 살고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청룡과 홍룡으로 나누어진 이무기들은 단정하게 수도를 하고 있었는데, 용이 될 때는 하늘로 올라가며 청룡 홍룡이 짝을 지어 승천했고, 맨 마지막 청룡이 혼자 남아 승천하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지만 승천하는 청룡의 옆에는 선녀가 날고 엄숙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산 아래에 구멍이 나 있다고 한다.

모금애라는 지역은 모금외, 가치멸이라고도 하며, 옛날 마을에 모과나무가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미내미는 무네미라고 하며, 산줄기가 낮아서 이쪽의 물이 저쪽으로 넘어 가게 된 주변에 자리 잡았다 해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세멸은 용당 동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역으로, 마을에 세 봉우리가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는데 삼홀이라고도 한다.

왕제산은 구룡말 동북쪽에 있는 산으로 왕티라고도 하며 이 지역의 가장 큰 산이다. 옛날 백제왕이 내려와서 제사를 지내던 산이라 한다. 마을에 호산나어린이집이 자리 잡고 있다.

4리는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원수 산업도로가 시원하게 뻗어 금강 하구둑과 연결되어 있다. 이 지역은 원모르리, 원모노리라고 부르는데, 이 마을에 주마탈안(走馬奪鞍)의 명당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고순개라 부르는 지역은 마을 지형이 고슴도치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위포라고도 한다. 안쪽에 자리 잡았다 해서 안뜸이라 하는 지역과 소치라는 지역이 있다. 건너뜸과 방죽골 또는 신탄뜸이라 하는 지역은 옛날 방죽이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농공단지 입구 쪽에 자리 잡고 있다. 어업소득이 높은 마을로 대하, 꽃게, 실뱀장어 등이 소득원이다.

## 제2장 서천읍(舒川邑)



서천읍 전경

서천읍은 서천군청이 자리 잡고 있는 군 소재지로 서천군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신석기시대부터 인류가 정착한 곳으로 추정되나 부락국가의 형성은 없었던 지역이며, 백제시대부터 고을을 이루었던 곳이다.

백제시대에는 설림군(남양군이라고도 부름)으로 소속되었으며, 백제가 멸망한 후 통일신라시대에는 35대 경덕왕 시절 서림군 소속이었다. 고려 초기 1018년(현종 9)부터 가림군의 영현인 서림현에 속했으며, 그 뒤에는 감무(監務)가 다스리는 지역이었다. 1314년(27대 충숙왕)에 지서주사(知西州事)의 고을에 속했으며, 조선 초 1413년(태종 13) 서천군 개곡면이라 했다. 조선 말 서면, 하루, 교촌, 동면, 상루, 사동, 화산, 신리, 유곡, 금산, 내동의 11개 동리(同里)를 관할하다가 1914년 군면 통합에 따라 판산면의 태산 외 17개 동리와 장항면의 성북 외 10개 동리, 서부면의 동죽리와 문장리의 백양, 우산 2개리, 동부면의 장선리 일부, 한산군 서하면의 월포리 일부를 통합하여 서천의 옛 명칭인 남양의 이름을 따라 남양면이라 하여 군사, 사곡, 화금, 태월, 둔덕, 두왕, 동산, 삼산, 화성, 오석, 신송, 구암 등 12개리로 개편 관할했다. 그 후 1917년 11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서천면이라 고치고,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해 마서면의 남산리를 흡수해서 13개리를 관할하다가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4호에 의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서천읍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지역은 서쪽에 자리한 숲이라 해서 백제 때부터 도원지로 널리 알려졌으나 금강을 사이에 두고 작은 냇물이 수려해서 서천이라 불린 곳이다.

동쪽으로는 두왕리가 동경 126°44' 25" 로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고, 신송리가 동경 126°29' 50" 으로 가장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남쪽으로는 삼산리가 북위 36°02' 19", 북쪽이 둔덕리로 36°7' 20" 에 위치해 있는 비교적 둥글게 형성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천읍 군사리에는 군청이 자리 잡고 있으며, 서천교육청, 서천경찰서서림지구대, 서천읍 청사를 비롯한 각 기관과 금융기관 등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서천향교와 서천읍성의 문화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서천고등학교, 서천여고, 서천여자정보고, 서천여중, 서림여중, 서천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이 있어 주변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와 직장 출퇴근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이밖에도 2004년 서천 특화시장이 개장되어 인근 전북 등지에서 활어를 사기 위해 모여들기도 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서천군 관내 교통의 요충지로 국도 4호선과 21호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와 장항선 철도가 관통하고 있다.

총 27.84km<sup>2</sup>(경지 57%, 임야 26%, 기타 17%)의 면적에 2006년 12월 31일 현재 5,130호에 13,962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농 복합지역이다.

## -군사리(郡司里)

서천군청이 자리 잡고 있는 서천의 요충지인 군사리는 서천읍의 가장 변화가로 군 단위 주요 기관이 운집해 있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서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다.

군사리는 백제 때 설림군이었다가 신라와 고려 때는 서림군에 속했었다.

조선 초 1413년 서천군에 속했으며, 조선 말 서천군 개곡면의 지역인데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면리, 하루리, 교촌리, 동면리, 상루리, 사동, 화산, 신리 각 일부와 서부면 동죽리 일부, 판산면의 황

산리 일부를 합하여 서천군청이 있다 해서 군사리(郡司里)라 했으며, 남양면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 11월 1일 면명 변경에 따라 서천면 군사리가 되었다. 그 후 1979년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서천읍 군사리가 되었다.

군청 뒷산을 반월성이라 하는데 그 곳에는 서천여중고와 충열사, 체육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군청소재지인 만큼 상가와 각종 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나 당초에 살던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군사리 마을 전경

옛날에는 시장이 서천군청 옆에 위치해 있어 그 지역을 지금도 구장터라고 한다. 그 후 시가지 중심부에 자리 잡았었는데 장소가 비좁고 그로인해 교통이 혼잡하여 2004년 현재의 위치로 옮기고 싱싱한 해물을 대상으로 특화시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주말이면 인근 군산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생선을 사기 위해 많이 모여들고 있다.

군사리에는 옛날부터 전해져 오고 있는 거북형의 비석 귀부가 4개 있는데, 그 하나는 서천여중고 교정에, 또 하나는 군청 앞에 있으며, 다른 하나는 부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농업기반공사 옆에 있는 개인 건물을 짓기 위한 과정에서 땅에 묻혀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건물 붕괴 등의 이유로 그대로 땅속에 매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사리에는 동쪽에 있다 해서 동변이라 하는 곳이 있고, 동변리 북쪽에 있는 고개를 동문재, 또는 동문터라 하는데 이는 군사 3리 서천향교 쪽에서 서천여중고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향교가 있는 지역을 생교굴, 향교촌 등으로 부르며, 위쪽에 자리 잡았다 해서 다락마을이라 부르는 지역에는 웃다락마을 또는 상루, 아랫다락마을 또는 하루라 부르는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상루와 하루는 옛날 이곳에 누각이 있어 연유된 이름이라 한다.

웃다락마을 서쪽에 있는 지역을 서변 또는 서변리라 하는데, 이곳은 서쪽에 자리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서쪽에 자리 잡은 고개를 서문터, 또는 서문재라 한다.

웃다락마을 남쪽에 있는 지역을 인산 또는 인살피라 하는데, 이는 옛날부터 인물은 산을 타고 태어난다 한데서 연유되었다고 한다. 강줄기에서 태어나는 인물보다 산을 타고나는 인물은 큰 인물이 많다 하는데, 인산에서 태어나는 인물은 글을 깨우치고 책을 읽는 인물이라 했다고 한다. 인산에는 뛰어난 인물이 나온다는 명당이 있다는 풍수적 해석에 따라 인산, 인살피라 부르게 되었는데, 인살

되는 인산피 즉, 명당에서 인물이 나온다는 해석이 변하여 인살피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군사리 중앙에는 홍여다리라는 다리가 있었다 하는데 이를 장다리, 솟은다리라고도 했다 한다. 옛날 1백명이 서천읍성을 쌓고 장사 한사람이 홍여다리를 놓기로 하고 목숨을 걸고 내기를 했는데, 여자 1백명이 참여한 성 쌓기가 끝나자 장사가 급히 홍여다리의 마지막 돌을 끼워서 똑같이 끝이 났다 한다. 그러나 급한 나머지 마지막 돌을 제대로 끼우지 못해 솟아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다리다. 또한 예부터 이 솟은 다리의 돌이 빠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설이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어 조명하기 어렵다.

2008년 현재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서천초등학교에서 삼거리 버스 터미널까지 구간의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다.

### -사곡리(寺谷里)



사곡리 전경

사곡리는 故오창열 씨가 이 마을에서 양계를 비롯한 큰 사업을 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오창동이 라고 부르게 되면서 오창동으로 더 많이 알려진 지역이다.

백제 때 설립군이었고,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 소속이었다. 조선 초 서천군에 속했으며, 서천군 개곡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유곡리, 사동, 금산리 일부를 합하여 사곡과 유곡의 이름을 따서 사곡리라 하여 남양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서천면에 속했으며,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서천읍 사곡리로 불리게 되었다. 사곡리는 당초 1리와 2리로 나누어졌었는데 1996년 10월 다시 3리로 분구되었다.

사곡리는 군사리와 연결된 도시 형태로 이어지는 마을로 전신전화국, 축협, 서해병원, 서천고등학교 등 굵직한 기관이 들어서 있으며, 예식장이 자리 잡고 있어 결혼시즌에는 많은 인파가 운집하고 있는가 하면, 아파트 등 여러 개의 다세대 주택과 레포츠 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원래는 조용하고 아담한 농가가 주를 이루던 마을이었으나 군 소재지와 인접하여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마을이다.

절굴이라 하는 지역은 사동이라고도 하며 사곡리의 으뜸 되는 지역으로 절이 있었다 한다. 또한

이 지역을 적골이라고도 불렀다 하는데, 이는 옛날 이곳까지 배가 들어오던 시절 마적떼들을 피해 이곳으로 왔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마을에 서천군의 사직단 터가 있어 매년 고을 원이 제사를 지냈었다 하며, 절굴 뒤에 성황당 터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곳 주민들이 자주 찾아 소원과 액운을 쫓아달라고 빌었다 하며, 그 주변에 용이 승천하였다는 용바위가 있다.

들고지라는 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깎아내고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유곡은 절굴 북쪽 끝에 있는 마을로 느릅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느릅나무가 많았던 곳에 마을이 생겼다 해서 이 같은 지명이 붙여졌다고 전한다.

용바위 서북쪽에 오석리로 가는 모퉁리를 아홉모랭이라고 하는데, 조선 초에 큰 화가 있었던 모퉁이로 전해지고 있다.

### -신송리(新松里)



신송리 마을 전경

서천읍 시가지에서 신송교를 지나 곧게 뻗은 길을 따라 가다보면 신송리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신송이발소에 이르게 된다.

이 마을에는 천연기념물 제353호로 지정되어 관리되던 신송리 곰솔이 있었으나 낙뢰로 2004년 고사되어 주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특히 이 곰솔에서는 매년 정월 곰솔제를 지내며 마을의 무사 안녕을 빌어 왔었다.

신송리는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던 지역이며,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는 서림군 소속이었다.

조선 태종 13년 서천군이라 했고, 조선 말 서천군 장항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하송리, 신장리, 중송리와 비인군 일방면 장구리 각 일부를 합하여 신송리라 해서 남양면에 편입되었다가 그 후 서천면에 속했으며, 읍 승격에 따라 서천읍 신송리가 되었다.

신송리는 1리 장마루와 2리 화송으로 구분되는데, 1리는 장마루와 섭다리로 나누어진다. 장마루는 시장이 섰던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며, 신장이라고도 하는데, 60년대 KBS라디오의 ‘장마루촌 이발사’라는 연속극으로 유명했던 곳이며, 이 시나리오의 이 마을 출신 박서림 씨의 대표작이다.

섭다리는 장마루 서남쪽에 위치하며, 마을에 섭이 많아 쌓여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옛날에는 숲으로 덮였던 자리에 마을이 생기면서 섭다리라 불렀다 한다.

화송은 송동 아래쪽에 있는 지역으로 아래에 자리 잡았다 해서 하송이라 하다가 변하여 화송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신송 1, 2리와 구암 1, 2, 3리를 오송동이라 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마을 앞 논 가운데에 향샘이 있는데, 곰솔제를 지낼 때 제주가 그 물로 목욕재계하고 그 물로 술을 빚고 밥을 지어 지냈다고 하며, 곰솔 뿌리가 향샘까지 뻗어 있다는 설이 전해지기도 했다.

향샘은 옛날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샘으로 물맛이 좋고 신성시 하던 샘인데, 향아리를 묻어놓고 바가지를 이용하던 샘이라서 향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화송 뒤 골짜기를 사기점골이라 하는데 옛날 사기점이 있었던 골짜기라 한다.

## -구암리(九岩里)



구암리 전경

구암리는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으며,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는 서림군 소속이었다. 조선 초 1413년(태종 13)에 서천군에 속했으며, 조선 말 서천군 장항면의 지역으로 거북바위가 있다 해서 거북바위 또는 구암이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중송리 일부를 합하여 구암리라 해서 남양면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 서천면에 편입되었다. 또한 1979년 서천면이 읍으로 승격함에 따라 서천읍 구암리가 되었다.

송동이라 하는 지역은 본모루 서남쪽에 있는데, 옛날 노송이 숲을 이루어 마을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며, 솔밭 가운데 마을이 있다 해서 송동리라 불리던 마을로 오송동의 한 지역이다.

왕심산 아래 자리 잡은 곳을 구암이라 하는데 거북바위라고도 하며, 마을 뒷산에 거북이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해서 구암거북바위라고도 하는 마을이다.

본모루는 송동 동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옛날 농사를 지을 때 마을 단위로 보를 막아 저수를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항상 보를 막을 때는 머리 쪽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 해서 처음에는 보머리라 하다가 변하여 본모루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지자체가 되면서 군민이 뽑은 최초의 군수 박형순 씨가 살고 있는 마을이다.

전 국방차관이며 전국회의원인 故김종갑 씨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 -오석리(烏石里)



오석리 전경

서천읍 시가지에서 판교 쪽으로 가다보면 서해안고속도로 교각이 세워져 있다. 마을 중앙에 대규모 오석교가 들어섬으로써 마을이 양분되고 그로 인해 8세대가 이주함으로써 인해 주민들이 옛 정서를 그리워하고 있는 마을이다.

오석리는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으며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는 서림군에 속했고, 조선 초에 서천군이었던가 조선 말 서천군 장항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기동, 고룡리, 외장리, 구암리 일부와 비인군 이방면의 하와리, 외산리 각 일부를 합쳐 오석리라 하여 서천군 남양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서천면 오석리가 되었다가, 서천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서천읍 오석리가 되었다.

오석리는 검은 돌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여수고개는 외장티, 외장재라고도 하는데 고개가 꾸불꾸불 돌아서 여우에게 많은 흠뿔을 당하는 고개였다 한다. 노루형이나 노루형인 고개 발목부분에 여우가 많이 산다는데 이곳이 그러한 곳에 해당되는 고개라서 여우가 많이 살았다고 전해진다. 이와 연결되어 고룡 서북쪽에 있는 지역을 진머루라 하는데 지형이 노루의 목처럼 생겼다 한다.

구두말이라는 곳이 있고, 여수고개 동남쪽에 있는 고룡굴은 뒷산이 용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오석리 앞산과 연결된 앞들에 있는 독을 용꼬리로 보고 그렇게 불렀으나 지금 그 독은 경지정리로 없어졌다.

고룡굴 동남쪽에 위치한 지역을 기동이라 한다. 옛날 토정 이지함이 이 지역에 들렀다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자기도 풀 수 없는 지세라 하여 고개를 설레설레 하였다는데, 그 후 천하의 명당자리가 있다 하여 지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 한다.

오석리에서는 1994년 서해안고속도로 공사시 선사유적지를 발굴했다. 이곳에서는 주거지와 석관묘와 석개 토광묘, 옹관묘 등과 무문토기 등이 발굴되어 학계의 관심을 모았었다. 또한 기동과 진재마을에서는 백제 고분도 발굴되었다. 주민들의 전언을 들어보면 수많은 고분이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오석리 일대는 선사시대 유적과 백제시대 유적을 통해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용궁전씨가 동쪽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었다. 1920년에 간행된 『조선의 성』의 기록에 의하면 오석리는 57호가 용궁전씨가 거주하는 마을로 서천지역의 용궁전씨는 사옹원의 직장을 지낸 전세권(全世權, 1467~1528)이 경기도 광주에서 고령굴에 입향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고령굴에는 사당이 있으며 오석산에는 1982년 세운 전세권의 묘비가 있다.

마을 주민 중 50%가 용궁 전씨이며, 도로변에 있던 색동어린이집이 2005년 마을 안쪽으로 넓게 터를 잡고 새로 지어져 마을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켰다.

## - 화성리(花城里)



화성리 마을전경

서천읍 화성리는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으며,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에 속했던 곳이다. 조선 초 태종 13년(1413) 서천군의 영역이었으며, 조선 말 서천군 장항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성북리(城北里), 화리(禾里), 어은동(魚隱洞), 화호리(禾好里) 일부와 비인군 이방면의 담화리(淡花里) 각 일부를 합하여 화성리(花城里)라 해서 남양면에 편입되었다가 그 뒤 서천면에 속하게 되었으며, 지금의 서천읍 화성리가 되었다.

화성리는 1리와 2, 3리로 나뉘어졌었으나 2, 3리를 통합하여 지금은 1리와 2리로 구분 되고 있다.

마을 뒤쪽으로 사밭봉을 끼고 멀리 희리산을 바라보고 있는 화성 1리는 그동안 주민 80%가 채종을 업으로 삼아 소득을 올려왔다.

어은 서쪽에 있는 지역을 대마굴이라고 부르는데, 예부터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의 명당이 있다고 알려진 마을로 마치 연꽃이 물에 뜬 형국이라고 한다. 이를 연유로 담화골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대마굴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전한다. 사밭처럼 생겼다는 사밭봉과 산 뒤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라 잣디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다. 또한 이곳 마을 뒷산의 산사면에서 석기(石器)가 출토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어은이라는 곳은 마을이 사방으로 막혀 있어서 응굴이라고도 부른다는데, 마을 서남쪽으로 겨울에 물을 저장했다가 농사철에 쓰는 큰 논이 있었다 하며, 선비가 묻혀 살만한 마을이었다고 전해진다. 응굴 옆에 있는 지역을 남생이라 하는데, 지형이 남생이 처럼 생긴데서 연유되었다고 한다. 응굴 서쪽에 있는 지역을 구석이라 한다. 이는 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거북돌이 있다 해서 구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말도 전해진다. 응굴 동쪽 지역을 동피라 하고 남쪽 지역을 새피라 하는데 지형이 배처럼 생겼다 해서 새매라 하다가 새피가 되었다고 한다.

특히 화성 2리는 마을 앞에 길게 독을 이루고 그곳에 소나무가 병풍을 두르듯 심어져 있는데, 이는 마을이 물고기가 숨어 있는 형국이라서 이를 못나가게 하는 수구막이(풍수지리에서 골짜기의 물이 돌아 흘러 하류가 보이지 않는 땅의 형세, 또는 좋은 밭자리의 조건) 역할을 하기 위해 심어졌다고 전해진다.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으뜸 되는 아름답디 큰 소나무는 외부인들이 와서 팔라고 했으나 주민들은 절대로 팔수 없다고 했다 한다.



마을 앞에는 안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월명산, 동뢰, 새뢰, 소금재 등 야트막한 산이 마을 주위에 산재해 있다.

화성 1리 대마골로 넘어가는 곳을 모기장터라고 부르는데 그 곳에는 서낭당이 있었다고 전한다. 시루굴로 부르는 지역은 원래 3리였으나 2리로 통합된 곳으로 지형이 시루처럼 생겨 붙여진 지명이라 하며, 화리라고도 부른다.

대마골 뒷산을 월맹산이라 하는데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달이 밝은 날 달맞이를 한 산이라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으며, 매년 음력 8월 17일이면 대마골 아낙네들과 처녀들이 이 산에 올라 지난 일년 동안의 일을 회상하면서 앞으로의 일을 서로 나누며 하룻밤을 보내던 장소가 바로 월명산이고, 지당재라고도 부르는 산이다. 이밖에도 사발처럼 생겨 사발봉이라 부르는 산이 있다.



노인회관 전경

80년대에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어 그 시상금으로 마을 창고를 건립하여 농기계와 마을 집기 등을 보관하고 있으며, 마을에 5백여 평의 밭이 있는데 임대소득으로 적십자회비 납부 등 마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 -태월리(台月里)



태월리 전경

태월리는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던 곳이며,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는 서림군 소속이었다. 조선 초 태종 13년 서천군에 속했고, 조선 말 서천군 판산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태산리(台山里), 장성리(長城里), 온수동(溫水洞), 축산리(楸山里), 월지리(月支里)와 장항면 어은동(魚隱洞) 각 일부를 합하여 태월리라 해서 남양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서천면이 되었으며, 읍 승격에 따라 서천읍 태월리가 되었다.

쌀리메는 마을 동북쪽으로 태월리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마을이다. 쌀이 많이 나오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해서 쌀피라고 하다가 변하여 싸리메가 되었다 한다.

싸리메 서남쪽에 있는 마을을 테메라 하며, 태산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테를 두른 듯한 곳에 자리 잡은 마을로 옛날에는 나무가 무성했던 마을이었다 한다.

음지뜸이라는 지역은 음지쪽에 마을이 형성되어 붙여진 이름이고, 양지뜸 역시 같은 연유에서 비롯되고 있다.

싸리메 북쪽 월고산 아래에 자리 잡은 마을을 월지라고 부른다. 이는 월고산 아래에 있다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태봉산에는 토성으로 추정되는 태월리 산성이 있는데 산의 정상부에 테피식으로 축성되어 있다.

조선후기 기록인 『여지도서』 서천현 방리조에 의하면 태월리의 자연마을인 태산리가 확인된다. 판산면에 속한 마을로 판문으로 부터 동쪽으로 6리 떨어진 마을로 호수는 11호, 남자 20명(台山里自官門東距六里編戶十一戶男二十口女二十口)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 이었다.

퇴피 마을 입구에는 1982년 한산 향교 추천으로 세운 이승덕(李承德) 효행비가 있다. 이 마을에는 원래 순씨가 먼저 살았다고 전해지지만 지금은 살고 있지 않다.

마을에 태월초등학교가 있었으나 학생이 줄면서 서천초등학교로 통합되고, 그 자리에는 현재 공동체비전고등학교가 새롭게 들어서 전국 기독교 자녀들의 대안학교로써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동체비전 고등학교

## -둔덕리(屯德里)



둔덕리 전경

서천읍 둔덕리는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으며,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 소속이었다. 조선 초 1413년 서천군에 속했으며, 조선 말 서천군 판산면의 지역으로 마을이 둔덕에 자리 잡았다 해서 둔더기, 도는 독덕이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용학리, 월지리, 동산리 각 일부와 문장면 백양리, 우산리 각 일부를 합하여 둔덕리라 해서 남양면에 편입되었다가 지금의 서천읍 둔덕리

가 되었다.

월명산과 둔덕리 산성이 마을을 감싸 안고 있으며, 5백여 년 된 은행나무가 마을 뒤편에 우뚝 선 채 거대한 뿌리를 뻗어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

마을 뒤에 있는 월명산을 지장대라고도 하는데, 옛날에 전망대 역할을 했던 듯 하며, 산줄기가 네 개의 다리를 이루고 있어 그렇게 부른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다. 마을 왼쪽에 있는 둔덕산성은 테 피식 산성으로 산정에 250칸 정도의 토성이 있으며, 두 계단으로 되어 있고 백제 때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그 곳을 테피라 부른다.

산성 곁에 있는 고개를 어은고개 또는 언고개라 부르는데, 이는 고기가 숨는 형국으로 옛날 군사가 숨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하며, 얼마 전까지 그곳에서 돌화살촉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고 한다.

웃굴이라는 지역은 군사가 머물러 유군이라고 하다가 변한 지명이라 하며, 주변에 초막골이 있어 말이 풀을 뜯던 곳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이곳에 초분터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무연고 묘지가 많이 산재해 있다.

산내뜸, 산작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으며, 동남쪽에 있는 감새미 또는 감샘이라 부르는 곳은 겨울에 물을 저장했다가 농사철에 사용했다 하며, 실제로 샘이 있었다고 한다. 들에는 농사가 검게 잘 된다 해서 솟덩이라 부르는 옥토가 있으며, 월명산에는 노적바위가 있다.

둔더기 서남쪽에 있는 지역을 용학이라 하는데, 지형이 학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마을 뒤에 있는 은행나무는 1982년도 군 지정 나무로 둘레가 4.4m, 수고가 25m이며, 얼마 전까지 이곳에 제단을 마련하고 당제를 지냈었다. 주변에 예사롭지 않은 돌이 60기 정도 산재해 있으며, 마을 주변 산에는 석관묘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 - 동산리(同山里)

동산리는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었고,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에 속했던 지역이다. 조선 초 1413년(태종 13)에 서천군 소속이었다가 조선 말 서천군 판산면의 지역으로 동산 아래에 있다 해서 동살 또는 동살미 라고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정산리, 유산리 일부를 합하여 동산리라 해서 남양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서천면이었다가 서천읍 동산리가 되었다.

부영재 남쪽에 있는 마을을 동살매 또는 동살미라 하며, 동산의 원마을 원동산 서쪽에 있는 곳을 안솔매라 한다. 또한 밖솔매라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는 노송매 바깥쪽에 자리 잡아 바깥솔매라 하다가 밖솔매가 되었다고 전한다.

부영재는 산모양이 부엉이처럼 생긴데서 비롯되며, 구석뜸과 서뜸, 대곶마을, 동뜸, 아래뜸 등이 있다.

평산 신씨 집성마을이며, 마을에는 동산주유소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 복돌이라는 돌이 있는데, 전해오는 설에 의하면 이 돌이 있어 마을이 융성했으나 인근 태월리 주민들이 그 복돌을 수령에 갖다 놓은 후로 마을이 침체되었다가 복돌을 찾아오자 다시 부흥했다고 전한다. 따라서 도로공사를 할

때 마을 앞에 붙박이로 세워놓았다.



동산리 전경

마을이 특히 교육열이 높아 자녀들을 외지로 보내어 젊은이들이 별로 없으며, 서울 사당동에는 동산타운이라 할 정도로 동산리 출신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 마을에 사는 인구수 보다 오히려 많다고 한다.

### -두왕리(斗旺里)



두왕리 전경

두왕리는 지난 1991년 콜레라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마을이다.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던 마을이며, 신라시대 서림군에 속했고, 고려시대에도 서림군이였다. 조선 초 서천군이였으며, 조선 말 서천군 판산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두모동, 선왕리, 옥갈리, 삼수동, 온수동, 정산리의 각 일부를 합해 두모와 선왕의 이름을 따서 두왕리라 하여 남양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에 서천면이었다가 읍으로 승격되어 서천읍 두왕리가 되었다.

두왕리에서 돈담배로 돌아가는 모퉁이를 효자모랭이라고 하는데, 이 마을은 효자마을로 알려져 있다. 마을 입구에 풍천 임씨 열녀문이 자리 잡고 있으며, 임씨의 아들 故김석환씨는 성균관에서 효자로 발천 받았다.

마을로 고속도로가 지나고 그로 인해 안뜰이 고립되어 지난 1996년 12월 일부 주민들이 새로 집을 짓고 이주했다.

옛날 5일장이 섰었던 장터를 정장매 또는 삼수동이라 하는데, 삼수동은 냇물이 세 곳에서 흘러 모이는 곳이라서 삼수동이라고 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옛날 중국에서 바라보니 기가 서려있는 지

역이 있어 그 맥을 잘라 놓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곳이며, 그래서 마을에 큰 인물이 없다는 설도 있다.

돈담배는 삼수동 북쪽에 있으며, 두왕리의 중심이 되는 마을로 안뜸, 새뜸, 밧뜸, 서낭절, 옹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수동이라 하는 곳은 돈담배 남쪽에 있는 마을로 산수가 아름답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장매는 돈담배 남쪽에 있으며, 옛날 시장이 섰었던 시장터라 한다.

돈담배와 산수동 사이에 청용산 또는 매미재라는 산이 있고, 청용산 아래에는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황새바위라고 한다. 바위 모양이 황새처럼 생긴데서 연유되고 있다.

오정굴이라 하는 곳은 옛날에 오동나무 아래 찬샘이 있었던 마을이라 오정굴이라 하다가 변해서 오정굴이 되었다 한다.

### -삼산리(三山里)

서천읍 삼산리에는 옛날 일제시대의 건물이 상당수 남아 있어 한때는 영화 촬영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낡아서 붕괴된 집이 많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기도 하다.

5일장이 서던 곳이었으며,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졌었고, 지난 1987년 여름에는 수해로 인해 마을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길산초등학교 옥상에서 헬기에 구조된 사례를 남긴 마을이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서천 목화주택으로 집단 이주하기도 했다.

삼산리는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고,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 소속이었다. 조선 초 서천군에 속했으며, 조선 말 서천군 판서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길산리, 고산리, 황산리, 삼수동, 옥갈리, 갈산리와 개곡면 화산리, 신리와 서부면 동죽리, 동부면 정선리, 한산군 서하면 월포리 각 일부를 합하여 옛날에는 황산이라 부르던 곳을 삼수와 길산의 이름을 따서 삼산리라 하여 남양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서천면이었다가 지금은 서천읍 삼산리가 되었다.

길산은 질메다리라고도 부르는데 옛날에는 마을에 개가 있었고, 길이 질어서 질메다리, 질산이라고 하다가 변하여 길산이라고 했다 한다. 삼산리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마을이다. 지금은 문산과 판교에 수리조합이 있어서 가뭄걱정이 없지만 예전에는 음력 4월이나 5월이 되어서 날씨가 가물기 시작하면 비를 기다렸다. 6월이 되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두왕리에 있는 천복재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또한 길산에서는 산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다먹었는데, 날이 가물면 식수도부족해서 마을사람들끼리 샘제를 지내기도 했다.

질메다리 서쪽에 새로 생겼다 해서 셋터말이라 하는 곳이 있으며, 가룻매라는 지역은 지금부터 150여 년 전만 해도 이곳에 바닷물이 드나들었다 한다. 그 때 큰 길이 산봉오리로 가로질러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남산 기슭으로, 동쪽에서는 고살매로 길이 나 있었다 한다. 그 길이 산등성이를 가로지르는 형태가 마치 여인이 남자를 하였을 때 가르마를 탄 것처럼 보였다 하여 그 쪽 마을을 가룻매라고 했다 한다.

질메다리 서쪽지역을 철건너라 하는 것은 서천에서 볼 때 장항선 철도 건너에 있는 마을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산 2리 길산장이 서던 곳에는 지금도 옛 정취가 남아있으나 외곽도로가 생기고 특히 길산초등

학교가 서천초등학교와 통합되면서 마을이 더욱 침체되고 있다.

길산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삼산 3리에는 군내 유일하게 갈꽃비 특산단지가 있고 이를 생산하는 작업장이 있다. 고살매, 또는 고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전북 옥구군 개정면에 고살매라는 큰 산이 있었는데, 천지개벽이 있을 당시 폭풍우가 불어 그 산이 금강으로 떠 내려와 이곳에 자리 잡았다 하며, 따라서 전라도에서 조곡과 세금을 받아갔다 한다. 마을의 산이 소의 형태를 지녔다 하는데, 지금의 산을 파보면 황토흙이 나오다가 더 깊이 파면 바다의 빨이 나온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전북 고살매에서 떠내려 왔다 하여 고살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마을이 말 형국이라고도 하며, 마을의 젓줄이라고 하는 샘이 있는데 이 샘물은 물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

현재 마을의 역사를 보여주는 관련 유적은 남아 있지 않다. 성씨 또한 홍씨, 구씨가 많이 살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마을을 떠났으며 현재는 여러성씨가 함께 살고 있는 각성반이 마을이다. 마을이 가장 번성 했을 때에는 새마을 운동때로 약 120여호 정도가 살았으며, 현재 가루매에는 약 60호 정도가 살고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삼산역이 있었으나 인구의 감소로 약 20년 전에 없어졌다.

삼산 3리는 특히 주민들이 대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는 마을의 80%가 송씨네 문중 땅이라서 가을에 농사지어 벼로 임대료를 내고 있으나 집을 새롭게 중축하기가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마을 땅이 송씨네 문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옛날 송감사를 지내던 분이 멀리서 바라보니 하늘에서 이곳을 향해 별이 떨어지고 있어 이곳이 명당임을 알고 자리 잡았다고 하며, 현재 마을 입구에 그 사람의 산소가 있다.

길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이 마을을 포함하여 마서면 일대와 함께 진행되고 있어 마을 발전이 앞당겨지고 있기도 하다.

## - 화금리(花衿里)



화금리 전경

화금리는 길이 험하여 4~5명이 짊어주어야 넘어 다닐 수 있다는 사오고개 아래에 자리 잡은 마을이다.

백제 때 설립군에 속했고, 신라 때와 고려 때 서림군이었으며, 조선 초 서천군에 속했었다. 조선

말에는 서천군 개곡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내동, 금산리, 화산리 각 일부와 판산면 갈산리, 온수동 각 일부를 합하여 화산과 금산의 이름을 따서 화금리라 하여 서천군 남양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서천면에 속했다가 현재의 서천읍 화금리가 되었다.

화금리는 이불매라고도 하는데, 이불매는 화금리에서 으뜸 되는 마을이다. 화산이라고도 하며, 고려 때 왜구가 서천포에 쳐들어 왔을 때 우리 군사들이 진을 쳤던 곳이라 한다. 또한 피난처로도 알려진 마을이다. 마을 뒤에 있는 산에 바위가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중등바위가 있다.

이불매 서쪽에 있는 지역을 논등굴이라 한다. 또는 금산이라고도 하는데, 논등굴이라 함은 지형이 논이 등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조선 초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왕위에 올랐을 때, 비단 같은 마음으로 구슬(玉)같이 살겠다는 선비와 아낙네들이 낙향해서 하나의 상징처럼 부르던 지역을 금산이라 했다 한다. ‘어려서부터 차라리 농사를 배워 세상사를 모르고 흙이나 파고 살았다면 이 괴로움이 없었을 텐데’ 하고 벼슬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불사이군의 지조를 지킨 선비가 금산이라는 명칭을 썼다는 마을이다.

논등굴 안쪽에 있는 지역을 안굴이라 하며, 서북쪽에 있는 산을 옥녀봉이라 하는데 이 산에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의 명당이 있다고 전한다.

마을에 새석굴이라고 부르는 곳 아래에 샘이 있는데, 이 샘을 참샘이라고 하며, 약샘으로 물맛이 좋고 항상 흘러넘친다고 한다.

현재 서천여상이 자리 잡은 곳은 일제시대 때 공동묘지였는데 어느 고승이 지나다 담장을 치며 아깝다는 소리를 연발하며 머지않아 큰 공장이나 학교가 세워질 것이라고 했다는데 그 예언이 맞았다고 전해진다.

이불매 동북쪽에 있는 지역을 갈피라 하는데 마을에 갈피처럼 생긴 산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방죽 위쪽에 있는 마을을 방죽재라 한다.

이불매 남쪽으로 새로 생겼다 해서 새뜸이라 하는 지역이 있으며, 논등굴 서남쪽 지역을 서밭댕이라고 한다. 이곳에서는 옛날에 소금을 구웠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장항선 직선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서천역이 이전된다.

이불매 마을 뒷산은 두왕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고분군이 발견되었는데 이 고분군은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주민들에 의하면 도굴로 인해 파괴되었다고 한다.

화금리의 지명이 처음 등장하는것은 『여지도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동개동면에 속한 마을로 화금리는 관문으로부터 동쪽으로 7리 떨어져 있으며 호수는 43호, 남자 69, 여자 69(衿山里自官門距七里編戶四十三戶男六十九口女五十一口)이 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화금2리는 이불매(110호)와 큰갈매(35호) 두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이불매는 김해 김씨가, 큰갈매는 나주나씨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두 성씨가 살기 전에는 홍산 순씨가 살았다고 하나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불매의 김해 김씨는 김우성(金禹成, 1554~1599)이 입향하면서 살게 되었다. 그가 어떠한 이유로 이곳에 들어오게 됐지는 알 수 없으나 다만 김우성의 부인이 용궁 전씨 수억(壽億)의 딸인 점을 고려하면 용궁 전씨와의 인연으로 이곳으로 피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불매에는 입향

조 김우성을 비롯한 자손들의 묘소가 있으며 묘소 앞에는 1978년 세운 묘비가 있다. 묘소아래에는 재실이 있는데, 정확한 건립연대는 전해지지 않는다. 또한 마을에는 효부(孝婦) 진주이씨와 김용기(金容琪, 1878~) 사행비가 있다.

큰 갈매의 나주나씨는 입향 내력은 전해지지 않지만 나두경(羅斗慶, 1672~1712)의 처 김해 김씨와 나봉찬(羅鳳燦, 1698~1774) 처 경주 김씨의 명정으로 보아 적어도 조선 후기부터는 마을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 -남산리(南山里)

남산리는 백제 때는 설림군이었다가 신라와 고려 때는 서림군에 속했었다. 조선 초 1413년(태종 13)에 서천군에 속했고, 조선 말 서천군 서부면의 지역으로 옛 고을이 있었던 남산 아래에 있다 해서 남산리라 했다고 전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봉하리, 동죽리, 계룡리, 화동의 각 일부와 개곡면의 신리, 상루리, 동변리의 각 일부를 합하여 남산리라 해서 서남면에 편입되었으며, 그 후 마서면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7월 1일 서천면이 되었다. 그 후 읍 승격에 따라 서천읍 남산리가 되었다.

남산은 지난 1995년 도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남산 동쪽으로 산정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옛날 조선 초 세종 전까지 이곳 고을이었던 남산 동쪽으로 산정(山亭)처럼 자리한 마을이라 산정촌, 산정말 등으로 부르게 되었다.

남산에서 마서면 한적리로 넘어 가는 고개를 마음치(馬飲峙) 또는 말음매재라고 한다. 남산이 고을이었을 때 말이 물을 마시던 곳인데, 고을의 마굿간처럼 말을 매어놓았던 자리이다.

산정촌과 남산 사이에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벼락바위라고 한다. 이는 바위가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벼락을 맞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산정촌 동쪽에 있는 모퉁이를 부채모랭이라고 하는데, 이 모퉁이에 부처가 있었다 해서 이 처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산정촌 동쪽에 있는 못을 용방죽이라 한다. 옛날에 이무기가 살아서 용이 되어 승천한 못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남산 정상에 산성이 있어 발굴했으나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고, 그곳에서는 옛날 장이 섰었다고 한다. 장날이면 특히 여인들이 모여 서로 만나는 만남의 장 역할을 했다고 전한다.

남산에서는 남산놀이가 전해오고 있는데, 이는 서천여인들이 매년 음력 8월 17일이면 남산에 오르는 놀이이다. 이 남산놀이는 백제가 망하고 여인들이 당나라로 끌려가는 남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모인 것이 그 시초라 전해지고 있다.

남산에는 옛날 조개무지가 있어 일찍부터 인류가 정착했던 곳으로 보인다.

## 제3장 마서면(馬西面)

마서면은 금강과 서해바다에 인접해 있고, 산과 너른 평야를 고루 갖춘 우수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농 · 어촌 지역으로 금강하구둑을 경계로 하여 전북과 도계를 이룬 충남의 관문이다.